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썸 (18)

예술인복지센터 수면 위... 준비 허술

문예재단 8월 직제 규정 개정 예술지원팀 소속 기구 명시 재정 등 확충 내년부터 본격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제 규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센터가 설치되었지만 당분간은 이름뿐인 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해 예산 4억5000만원 확보 목표-예술인복지센터가 명시된 문예재단 직제 규정 개정은 8월 14일자 인사에 앞서 이사회 의결과 제주도지사 승인을 거쳐 8월 12일 확정됐다.

에 예술지원팀 소속 기구로 예술인복지센터를 뒀다. 하지만 문예재단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개된 조직도에 예술인복지센터가 빠져있다.

이와관련 문예재단 측은 내년 운영을 목표로 제주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례상 2년인데 제주도는 5개년 계획=이번 기회에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뜻을 모아야 한다.

지증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 상황을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2017~2021년 5개년 계획으로 복지증진계획을 세웠다.

이와함께 해당 계획에는 이미 '제주예술인복지센터' 설치가 들어있지만 제주도, 문예재단 모두 관심 밖이거나 그 내용을 몰랐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황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가장 이른 한라산 마애명 1745년 윤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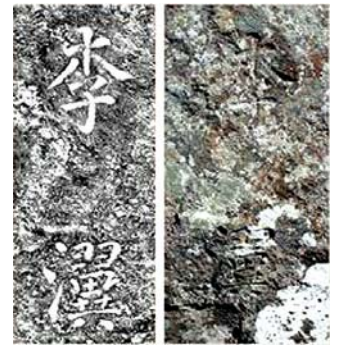
(5) 제주도 마애명

제주 산재 마애명 약 150건 한라산에 조정철 3대 제명 김정은 실제 등정 않은 듯

마애명 '방선문' 늦게 등장 용연 옛 명칭 '취병담' 명문



김정 마애명(왼쪽은 탁본)



이익 마애명(왼쪽은 탁본)

마애명(磨崖銘)이란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명문을 뜻한다. 마애각(磨崖刻)이라고도 하는데, 예부터 제주의 명소에는 제주목사나 관관, 현감 등 목민관은 물론 유배인들이 남긴 수많은 마애명이 전해온다.

제주 전역에 산재한 1910년 이전 조선시대 마애명은 12장소에 약 150건 정도다. 이를 장소별로 분류하면 ▷한라산 정상(동벽과 북벽)=30여 건(동벽 22건, 북벽 8건 등)

▷한라산 탐라계곡=4건 ▷제주시 방선문=약 65건(북면 24건, 굴내부 14건, 남면 25건, 남면 상류 2건) ▷제주시 용연=약 24건(동벽 19건, 서벽 5건)

연대 확인이 가능한 한라산 마애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목사 윤식(尹植) 일행 10명이 백록담 동벽에 남긴 것으로 '乙丑 五月'이란 문구가 있다.

부터 이듬해 9월이어서 을축년에 해당되는 1745년 5월 등정한 걸 알 수 있다.

백록담 동벽에는 조관빈(趙觀彬), 조영순(趙榮順), 조정철(趙貞喆) 3대에 걸친 명문이 있다. '壬子三月 趙觀彬 以副修撰言事 被謫登此頂 乙亥三月'이라는 마애명이 그중 하나다.

1755년(영조31) 조영순이 등정했다는 내용인데 조카인 조영순이 나중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조영순의 아들인 조정철은 '趙貞喆 丁酉以前 被謫庚戌 趙貞喆 辛未 以防口使 繼登絕口'

한라산 북벽에는 김정(金淨) (제주 유배기 1520년(중종15)~1521년 10월 사사(賜死)), 이익(李翼) (제주 유배기 1618년(광해10)~1623년(인조1), 최익현(崔益鉉) (제주 유배기 1873년(고종10) 12월~1875년 봄) 제명이 잇따라 보인다.

방선문에서 연대 확인 가능한 마애명은 38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1738년 10월~1739년 9월 재임했던 홍중정 목사는 방선문에 전해오는 첫 한시인 '登瀛丘' (등영구) 제명을 남겼다.

來'(석굴은 입을 크게 벌려 있는데/ 바위에 무수한 꽃 피었네/ 꽃 사이로 거문고 소리 울리네/ 마치 학이 날아 올 것 같구나)란 시로 1739년(영조 15) 초여름(己未首夏) 방문했다.

방선문 굴 내부 '訪仙門' (신선이 사는 곳을 방문하는 문)은 각자와 일시가 미상이다. 오늘날 쓰이는 방선문은 19세기 이후에 나온 명칭으로 추정된다.

방선문 남면에는 판관 정동리 일행의 제명이 보인다. 1726년 9월~1728년 6월 재임했던 정동리는 정미년(1727, 영조 3) 8월 방문했는데 방선문 마애명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다.

제주시 용연에는 제명자 미상의 취병담(翠屏潭)이 있다. '취병담'은 임제의 '남명소승'에 처음 등장하는데 '巖留三字' 표현으로 보면 1578년에 이미 각이 있었던 듯하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고립의 심연'에서 발견하는 '나'

추수희 기획 해요·아랑 2인 다방 프로젝트 두 번째 전시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기획분야에 선정된 다방(多方) 프로젝트 두 번째 전시가 이달 17~28일 제주시 스튜디오126(제주시 응답로 126,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기획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신진 큐레이터 추수희가 기획을 맡아 '고립의 심연'이란

이름 아래 해요·아랑 작가의 2인전을 펼쳐놓는다.

'고립의 심연'은 코로나19로 인한 타의적 고립이 가져온 문제점에서 출발해 그 시간 안에서 '나 다움'을 발견해 가는 여정과 더불어 의식과 무의식이 뒤엉킨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전 10~오후 5시, 일요일 휴관, 다방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계정(www.instagram.com/dabang_project) 참고.



해요의 'IMG-201(Everything's fine, darling)'

동네책방 55곳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제주 동네책방들이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 풀무질 등 도내 55개 동네책방 대표는 14일 성명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는 책의 다양성을 해칠 것이며 소수

의 독점적 시장장악으로 결국 양질의 도서는 찾기 힘들어지고 책 가격은 거품이 생겨 소비자인 독자에게도 해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현행의 부분도서정가제를 넘어 완

전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자본우선의 시장논리로부터 출판의 다양성을 지키고 동네책방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새농민상 본상

이석근·박유미 부부

제55회 새농민상 본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농협 희망의모임

회장 양용창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병화 강승철

(부: 故전창용, 모: 故고방자) (부: 故강상국, 모: 故양정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지방부이사관)·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이장 변흥문

개발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외 리민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 상가리 외사촌 형제일동

축 CONGRATULATIONS

합 격

제55회 공인회계사

김지원

(남주고 57회, 고려대 경제학과 3학년)

부: 김용수 · 모: 현경미

제55회 공인회계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엄마 친구

(미자, 영입, 현자)